

## 보험

## 산업이슈

2019. 04. 17

##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 코멘트

## News

**공청회, 구체적 내용보다 제도개선의 원칙 확인:** 보험연구원에서는 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축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장기에 수립된 고비용구조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사업비와 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칙으로 ① 소비자 수혜 차원에서 불필요한 비용 감축, ② 일방적 규제보다 공시를 통한 경쟁, ③ 총량규제보다는 형평성을 개선하고, ④ 설계사 권익 제고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도 “수수가 초기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완화”를 강조했다.

## Comment

**발제 내용, 사업비 한도 및 수수료 분급 확대:** 보험연구원 발제의 주된 내용은 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②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보험료 이하로 조정하고, ③ 수수료 분급을 확대(초회 25%, 초년도 50% 이하)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보장-적립이 분리된 손보상품의 경우 ④ 적립부분에 대해 사업비 부과 한도를 줄이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경쟁 다소 완화될 가능:** 최근에도 시책경쟁이 격화되어 4월초 손보사들의 주차별 특별 시책이 금감원이 권고한 250%를 넘어선 300%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었다. 모집 초기 수령하는 수수료와 시책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될 경우 과다한 시책비 지급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가 “(GA채널의) 유지관리 비용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기존 언론보도로 판단할 때 월납의 200% 내외에서 GA채널과 전속채널의 차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 분급 방 안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었으므로 시장이 우려하는 GA채널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Action

**일단 사업비 경쟁 제한은 분명 긍정적:** 시책비 경쟁이 줄어들면서 차아보험, 차매보험, 암보험의 경쟁성종양 담보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언더라이팅 완화를 통한 매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메리츠화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속채널에 대한 통제 완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이익구조가 사차이익보다 비차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시책비 집행을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사들의 실적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1년간 투자의견 비율 (2019-01-07 기준) – 매수(79.0%) 중립(21.0%) 매도(0.0%)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